

한국문화교류 소식

19호 2016년 3월 15일 발행 · 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우리말에 대한 어떤 기억



조남철
본회 이사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강의하는 일이 직업이다 보니 우리말과 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된다. 우리말과 글이 우리들이 서로가 하나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도 하나의 핏줄로 묶어주는 정서와 소통의 주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새삼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만난 어느 한

국어 교육 전공 교수는 우리말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확인하는 제2의 핏줄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낯선 나라에서 우리말을 쓰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과 관련해 다소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러시아의 고려인 동포와 관련된 경험이다. 몇 년 전 관계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 한글학교를 세우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하고 '후원회 밤'에 우수리스크의 실행위원장인 러시아인 동포를 초청하였다. 의례적인 몇 가지 행사가 끝나고 실행위원장은 동포 여성이 인사말을 하였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로 다른 지역의 동포들에 비해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는 고려인 실행위원장은 원고지에 인사말을 써 들고 와 떠듬거리며 인사를 했다. 장내에 모든 이들이 고려인 동포 여성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떠듬거리기는 했지만 진심이

말과 글은 민족을 하나로 엮는 가장 큰 열쇠이다.

당연히 세계화 시대 800만 동포를 하나로 묶는 가장 쓸모있는 도구도 우리말과 글이다.

그리고 이것은 재외 동포에게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할 이유이기도 하다.


담긴 그 말은 그 자리에 같이 한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더 이어졌다. “정말 미안합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해 이렇게 글을 써 와 읽고 있는 사실이 너무 미안합니다.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유창하지는 못해도 원고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말을 열심히 배울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순간 나는 너무 엄청난 충격에 쌓였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 중 누가 러시아 동포에게 우리말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몇 십 년 동안 낯선 남의 땅에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혼자 견디어 내야 했던, 나라도 겨레도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이제야 겨우 우리 곁에 함께 선 이 누이와 핏줄들에게 누가 우리말을 모른다고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왔다. 그 동포의 너무나 순박한 모습에 가슴이 저려 왔다.

지금 몇몇 지역에서 한국에 온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딱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다른 한 기억은 중국에 있는 어느 동포 대학에서의 경험이다. 그 동안 이런 저런 사람들의 따

뜻한 마음을 모아 동포 학생들에게 아주 적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주)락앤락의 김준일 회장이 연변대학에 매년 일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그 장학금 전달식에서의 기억이다. 전달식이라고 해야 락앤락 관계자와 연변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몇몇, 거기에 몇몇 한국인 유학생들 이외에는 조선족 교수와 학생, 연변 대학교의 한족 관계자,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동포 학생들이 전부였다. 식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한 한국인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생겼다. 식을 모두 중국어로 진행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한 한국인들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민족’을 느끼게 하기 위한 행사가 오히려 이질감을 더 분명하고 크게 드러낸 것이다. 나 또한 크게 당황하였고 순간 크게 불쾌했다. 행사 후 그들에게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들 역시 미안하다는 뜻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꽤 오랫동안 불쾌한 감정을 버리기 어려웠다. 그것은 분명 우리말을 모욕한 일이었고 말을 모욕하는 일은 민족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과 글은 민족을 하나로 엮는 가장 큰 열쇠이다. 당연히 세계화 시대 800만 동포를 하나로 묶는 가장 쓸모있는 도구도 우리말과 글이다. 그리고 이것은 재외 동포에게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권도
칼럼

태권도 정신과 공동체주의



Abhishek Dubey

인도 뭄바이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 석사과정

태권도를 연습하는 것과 태권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다. 한국의 경희대학교는 내게 태권도로 살아갈 기회를 주었다. ‘태권도로 살아가기’를 통해 나는 지혜와 고된 수련, 투지, 그리고 꿈이 가득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이를 통해 더 나은 태권도인이 되기 위한 삶의 가치들을 또한 배울 수 있었다.

나의 여정은 2010년 10월에 시작되었다. 나는 ‘세계태권도연맹-경희대학교 태권도 연수 프로그램(WTF-KHU Taekwondo training program)’ 이수 장학금을 받았던 소수의 혜택 받은 태권도인들 중 한 명이였다. 마치 꿈처럼, 세계 최고의 태권도 대학 중 한 곳에서 수련하고 교육받는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그리고 바로 그 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어 행복했다. 이 글을 쓰면서 경희대학교의 정문으로, 태권도장으로, 기숙사로 들어섰던 그 첫 발

걸음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울려 퍼지던 기합 소리를, 강의를,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태권도만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렸다. 한국 태권도의 중심 중 하나인 경희대학교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말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품새, 대련, 시범, 호신술의 현대적인 방법론을 배웠다. 그러나 매순간 더 나은 태권도인이 되기 위해 훈련받았던 것이야말로 진정 인상 깊었다. 단순히 신체적인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훌륭한 태권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치들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진정한 태권도인이 배출되는 이유인 것이다.

대학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왜 스포츠가 세계를 잇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의 무술 그리고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정신과 육체 그리고 영혼을 단련함으로써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곳에서 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세계태권도연맹-경희대학교 태권도 연수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태권도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사명에 걸맞게 진정한 태권도의 지혜와 그것의 가치를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공유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참된 의미로 태권도인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이다.

‘세계태권도연맹-경희대학교 연수 프로그램’



"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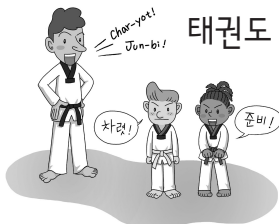
태권도를
연습하는 것과
태권도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은 나의 꿈이었고,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 모두에게 언제나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곳에서 맺었던 인연과 추억은 아직도 꽃피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간 후 나는 대학에서 배웠던 지혜를 나누기 시작

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어떤 기술을 배웠냐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단순히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는 태권도로 살아간다."



영문 번역_ICKC 최영옥 사무국장



태권도 기사

미국 육사 생도들의 기합소리 "태! 권! 도!"

미국 육군 초급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1802년 설립된 웨스트포인트(West Point)에 태권도 클럽이 생긴 것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태권도연맹(WTF) 산하 팬암(PAN-AM) 연맹 최지호 회장의 특강을 계기로 생도 12명이 배움을 자청했고, 이들은 불과 1년 만에 출전한 2002년 미국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출범 당시 12명이었던 태권도 훈련 생도는 현재 52명으로 늘었다. 태권도가 사관학교의 정식 과목이 아니라 각종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생도들은 개의치 않고 일주일에 세 번씩 모여 기량을 갈고 닦는다고 한다. 태권도 생도들은 곧 있을 미국 동부지역 대학 태권도 콘퍼런스에 참가할 예정이다.



출처_연합뉴스 2016. 02. 24.

조선족학교와 '민족'

김명선 교장과의 좌담

한국문화교류소식 18호에 <민족교육의 터전에 떠오르는 별>을 기고하였던 김명선 교장이 이후 본회를 직접 방문하여 좌담회를 가졌다. 김명선 교장의 교육자로서의 열정과 민족애를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에 좌담회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본보에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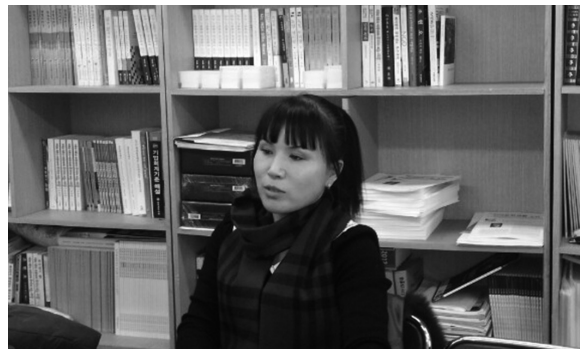
- 좌담일시 : 2016년 2월 3일(수), 13~16시
- 참 석 자 : 김명선 교장 (통하현 조선족 학교)
조남철 이사장, 김태진 연구위원, 최영옥 사무국장 (ICKC 측, 지면관계상 이하 'ICKC'로 총괄하여 호칭)

ICKC 지난 호에 소중한 글을 기고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 많은 분들께서 중국 내 조선족학교의 어려운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열정으로 이를 극복한 교장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해 주셨다.

김명선 글을 쓸 수 있는 지면과 아울러 이렇게 좌담회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니 오히려 더 고마움 따름이다.

ICKC 이번에 어떤 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김명선 한국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주 방문하는 편이다. 주로 재외동포재단 등 관련 기관에 교사 파견, 교육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려고 직접 많이 온다. 2008년 교장이 된 이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 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녔다. 나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도 무척 노력하셨다. 재학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글에는 언급을 못 했지만, 중국 교육 당국으로부터



좌담회 당시 김명선 교장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아 학교 건물 신축 허가 및 지원도 받았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것 같다.

ICKC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무척 축하할 일이 아닌가? 지난 글에서 농촌붕괴 현상 등으로 인해 조선족학교의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김명선 학교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은 맞다. 그러나 '조선족학교'의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한국어나 태권도, 사물놀이 등 우리 전통문화를 가르칠 만한

전문적인 교사가 부족한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도 늘 고민거리이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지원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유치원을 마친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써 유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교재나 교구 등이 너무 부족하다.

ICKC 한국에도 자주 오시는 등 이렇게 노력하시니 현재의 문제가 점차 개선되리라고 본다. 한국의 많은 뜻있는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의 신념 혹은 철학을 말해 주실 수 있는지?

김명선 나는 한족학교에서 공부했고, 한족학교에서 처음 교사생활을 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의식이랄지, 민족 문제를 지금처럼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통하현에서 하나 남은 조선족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조선 민족이 퇴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학교는 인재, 나아가 인간과 민족을 배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폐교를 막기 위해 학교의 '덩치'를 키우는 데 주력했다. 일단 학교가 살아야 민족도 살기 때문에 한족 학생을 과감히 받아들였다. 교육에서 당장 내일만 생각해서는 답이 없다.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를 학교 그 자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사회라는 더 큰 학교로 가기 위해,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마땅하다. 조선족 학생이든, 한족 학생이든 나중에 자신의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만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조선족학교에서 우리문화를 접한 이들이라면 한국과 중국 사회 모두에 어떤 식으로든 좀더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ICKC 여러 좋은 의견 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하현 조선족학교가 더욱 번영하기를 바라며 시간관계상 이만 좌담회를 마친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길 기대한다.

기록 및 요약_ 최영옥 ICKC 사무국장



재미 한국학교 교사들, 7월 덴버에 모여 학술대회

미국 내 1천 200개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최미영)는 오는 2016년 7월 14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 34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연다고 2월 3일 밝혔다. 제34회 학술대회는 창립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관'을 설치해 현지 주류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릴 계획이다. NAKS는 회의에 앞서 <35년 발자취를 찾아서-백서> 발간 기념식도 열었다. NAKS는 미국 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고, 소속학교에서 3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출처_ 연합뉴스 2016. 02. 03.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2015 ICKC 송년회

2015년 12월 28일(월), 본회가 후원하는 마리소리음악연구원의 '어울사랑 송년음악회'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2015년 ICKC 송년회를 가졌다. 한국 전통춤에 이어 실내악단 어울림의 공연으로 진행된 송년음악회를 통해 우리문화의 멋과 소중함을 한껏 느낄 수 있었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마련된 연회 자리에도 많은 회원분이 참석하여 서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것을 기원하며 자리를 마쳤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 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ICKC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15 후원하여 주신 분

2015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동현, 김명수, 김성열,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원갑, 김응철, 김정민, 김정복, 김정일, 김정택, 김제방, 김종근, 김종익, 김진원, 김진태, 김호일, 문영호, 박관용, 박경명, 박송이, 박신재, 박익근, 박원출, 박청수, 박평식, 배대환, 서승현, 서형숙, 성효동, 심재익, 위호인, 이대근,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영섭, 이용선, 이정남, 이정우, 이창걸, 이한설, 이항구, 이현목, 전영섭, 정범식,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최준영, 표재순, 홍경자, 홍계화, 홍시중,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신한금융투자, (주)P&H,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가나다순) **총액 : 73,810,00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창립 5주년 기념 포럼에 초대합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덕분에
ICKC는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포럼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한국문화에 살아 숨쉬는 배려 정신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일 시_ 2016년 3월 30일(수) 14:30~17:00
- 장 소_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프로그램_ [개회사 및 경과보고]
[포럼] 주제 : 한국전통문화와 배려의 윤리
강연 : “유교, 잊혀진 삶의 기술(ars vitae)”
-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찾아오시는 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T. 02-2001-7652



-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④번 출구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⑤번 출구
- *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사장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조남철 드림